



'제19회 화이자의학상', 성학준·박중원·최동호 교수 3인 선정

각각 기초의학상·임상의학상·중개의학상 부문... 혁신적 치료 대안 제시

‘제19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자에 성학준·박중원·최동호 교수 등 3명이 선정됐다.

기초의학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 교실 성학준 교수, 임상의학상은 국립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 박중원 교수, 중개의학상은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최동호 교수가 받았다.

화이자의학상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상으로, 대한민국 의학발전 및 인류의 건강과 복지에 기여한 의학자를 발굴하고 의료계의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지난 1999년에 제정됐다.

매년 ‘기초의학’, ‘임상의학’ 부문, ‘중개의학’ 부문에서 당해 연도 기준 2년 이내 발표된 개별 논문들에 대한 우수성, 창의성, 과학성, 공헌도 등을 평가해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수상자를 발표한다. 기초연구부터 실용적인 의학 연구까지 국내 의과학자들의 폭넓은 연구를 독려하고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한국적인 의학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공학교실 성학준 교수는 인조 혈관을 삽입할 때 기존 혈관과 다른 직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혈류장애 및 혈관 손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도에

반응하도록 프로그래밍된 형상기억 고분자(shape-memory polymer) 기반 기술을 활용한 이식관을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해 세계 최초로 3mm 이하의 혈관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기초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직경 근사값 2밀리미터 이식편의 성능을 입증하며 인조 혈관 삽입으로 인한 혈관 손상 문제를 해결할 대안책을 제시했다. 성학준 교수 팀은 "앞으로 돼지 실험모델에서 장기간의 y-shape 이식편의 성능을 검증할 연구가 계획돼 있다"며 차후 임상 연구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 박중원 교수는 작년 ‘저널 오브 헤파톨로지(Journal of Hepatology)’에 게재한 논문(Proton beam radiotherapy vs. radiofrequency ablation for recurrent hepatocellular carcinoma: A randomized phase III trial)을 통해 최근 간세포암 치료에 적용된 양성자 치료(PBT)의 안전성과 효능을 양성자 치료와 고주파열 치료의 결과를 비교하는 무작위 통제 시험을 기반으로 확인했다. 또한 3년과 4년 무진행 생존율에서도 고주파열 치료 대비 양성자 치료의 비열등성을 증명 했으며, 해당 연구에서 Grade 4 이상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아 양성자치료의 안전성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박중원 교수팀은 양성자 치료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여 간세포암 환자들의 치료 옵션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제공하였기에 임상의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중개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최동호 교수는 논문(Adenine base editing and prime editing of chemically derived hepatic progenitors rescue genetic liver disease)을 통해 정교한 유전자 교정 기술과 줄기세포 기술을 접목하여 유전성 간질환을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전성 난치질환 동물모델의 세포를 추출하여 체외에서 유전자 교정 후 다시 이식하는 ‘저분자 화합물 유래 간 전구-줄기세포-염기교정-프라이밍교정 기술 융합’을 치료 전략으로 세워, 유전성 난치질환인 티로신혈증 동물 모델에서 한 번의 치료만으로 생존율이 200%이상 크게 개선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 결과를 통해, 유전적 간 질환의 치료에 있어 정확한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한 세포 이식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올해 중개의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제19회 화이자의학상 시상식은 11월 3일 개최됐으며, 수상자에게는 부문별 3000만 원(총 9000만 원)과 상패가 수여됐다.

화이자의학상을 주관하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임태환 원장은 “화이자의학상 수상 연구들은 학술적으로 우수할 뿐만 아니라 미해결 임상과제에 대한 가설을 제시하고 새로운 치료법의 가능성을 열어줄 특출한 성과들”이라며 “지속적인 의학연구와 의료 현장에서의 응용을 독려하고 의욕을 고취하는 계기가 돼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 오픈, 강남시대 개막

미래의학과 사회공헌 실현하는 전초기지 될 터

고려대의료원이 고영캠퍼스 준공과 함께 본격적인 강남시대를 열었다.

고려대의료원이 지난 10월 7일 오후 4시 강남구 청담동 87-5 번지에 위치한 고영캠퍼스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행사에는 김재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을 비롯해 정진택 고려대학교 총장, 김영훈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을 비롯한 보직자 등이 참석했으며,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됐다.

고려대의료원 고영캠퍼스는 고려대학교 116년 역사상 첫 강남 진출로 그간

안팎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지상 10층, 지하 5층에 연면적 1,405평의 위용을 자랑하는 고영캠퍼스는 맞춤형 특화진료를 기반으로 한 최첨단 헬스케어 모델 창조, 융복합 연구, 사회 공헌사업 등 중 미래의학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인 도전과 탐구들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려대의료원이 국내 최초로 개발해 올해 3월부터 산하 안암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적용 중인 클라우드 기반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영상검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바로 고영캠퍼스 의료영상센터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국내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돕는 임상연구지원본부도 들어선다. 임상연구 지원본부는 고려대의료원이 지난 2019년 9월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세계 최초 로 국제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인증 (ISO14155)을 획득하면서 만든 조직이다. 유럽 시장 진출을 원하는 의료기기 업체는 반드시 강화된 의료기기규정(MDR)에 따라 ISO14155 규격에 맞는 임상 데이터를 제출해야 하는데 고려대의료원이 인증을 받으면서 국내 임상 시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고영캠퍼스는 고령사회 진입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홈헬스케어 분야 연구기지의 역할도 담당한다.

한국형 홈헬스케어 개발 연구를 통한 고령사회의 사회적 문제인 돌봄서비스를 질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고영캠퍼스는 의료원장 직속의 사회공헌사업본부가 입주한다.

고려대의료원은 최근 코로나19를 비롯해 국가적 재난이 닥칠 때마다 의료기관의 사회적 역할 및 가치 실현을 강조하며 사회공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사회공헌사업본부는 앞으로 의료봉사, 국제보건사업, 통일보건의료사업, 국가 재단대응 등 기존에 해오던 고려대의료원의 사회공헌사업을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호 이사장은 “고려대의료원은 고영캠퍼스를 통해 미래의학을 선도하고 의료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것”이라며, “고대의료원을 아끼고 지원해주시는 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기관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택 총장은 “오늘 고영캠퍼스의 준공이 고려대의료원의 가치를 높이고, 세계적인 의료기관으로 성장하는 전환점 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라고 말하며, “그저 좋은 고대의료원이 아니라 위대한 KU Medicine이 되기 위해서 모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라고 밝혔다.

김영훈 의무부총장은 “고영캠퍼스는 고려대학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청담이라는 새로운 거점에서 미래의학을 실현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초일류 의료기관으로 도약하는 모습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캠퍼스는 기존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을 비롯해 3개 병원(안암·구로·안산병원), 정릉 메디사이언스 파크와 함께 고려대의료원의 ‘5CAMPUS’ 플랜의 핵심축으로서 ‘세계 초일류 KU Medicine’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